참배하는 대선 경선후보들 18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서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인 문재인, 박준영,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왼쪽부터)가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정신계승 정권교체”

민주 대선 후보들 서거 3주기 추도식서 다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을 맞아 DJ 정신 계승과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문재인·손학규·김두관·정세균·박준영 후보는 18일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들은 추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민생안정 등의 DJ정신을 계승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생과 평화, 통합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꽃 피워,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12월 대선에서 승리해 민주개혁 3기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는 “김대중 정신과 그가 추구했던 가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지금 계셨다면 우리에게 잘 단결해서 정권교체하라고 독려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후보는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김 대통령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추모가 한때 회상에 그치지 않고, 그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깨달음을 얻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부인 이희호 여사와 아들 홍업씨 등 유가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손학규·박준영 후보는 17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광주 추도식에도 참석해 DJ정신 계승을 역설했다. 손 후보는 “국민의 스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사명감과 함께 정권교체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모든 구성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며 “DJ정신을 바탕으로 소명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생가인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해 호남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승화시켜 광주를 세계 속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역사의 고비와 맥락마다 민주·인권·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온 광주가 2015년 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평화통일에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쪼개지는 ‘DJ 사람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앞두고 분화 양상
각 캠프 선대본부장·선대위원으로 활동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를 맞은 가운데 ‘DJ 사람들’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전 비서관을 비롯, 이 훈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황인철 전 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이 최근 특보단에 합류했다. 특보단장인 정동채 전 의원도 김 전 대통령의 국민회의 총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손학규 후보 캠프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을 지내며 ‘햇볕정책의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아온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 또 동교동계 막내격인 설 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김동철 의원은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두관 후보 캠프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낸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고문으로 선대위 명단에 포함돼 있다.

정세균 후보 캠프에서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전병헌 의원과 김 전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김춘진 의원이 각각 총괄본부장,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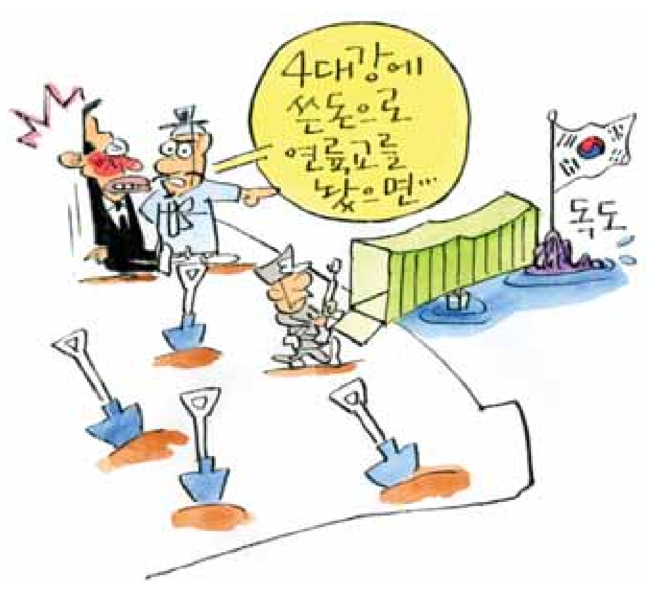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려온 박지원 원내대표는 중립적 경선 관리를 위해 아직 특정 캠프에 발을 담그지 않은 상태이다.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을 비롯, 한광옥·김옥두·남궁진·이훈평 전 의원 등 이른바 가신그룹 핵심멤버들도 당내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인사는 “캠프별로 권 전 고문 등에 대한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지만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도울 것”이라며 “친소관계에 따라 일부가 개인 차원에서 활동할 순 있지만 당분간 동교동계란 이름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박수 좀 받았을 텐데 …

대형마트·SSM 공세에 줄줄이 ‘폐업’

불황 늪에 갇힌 지역경제

1. 지갑닫은 소비자
2. 빚더미 가계
3. **벼랑끝 자영업자**
4. 산업계도 아우성
5. 전문가 진단

퇴직자들 ‘생계형 창업’ 뛰어들었다
하루 매출 3만~5만원 쥐고 한숨만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앞다퉈 창업했던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들이 퇴직과 함께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어,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몰락=지난해 광주지역 음식점 1만5125개소 중 약 10% 수준인 1541개소가 폐업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600여곳이 불경기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서 프렌차이즈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모(여·42)씨는 지난 7월 초 공인중계사무소에 가게를 내놨다. 지난해 10월 동생(여·40)과 함께 50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문을 연지 불과 9개월만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프랜차이즈 피자전문점을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장사가 되질 않았다. 결국 120만원에 달하는 월세조차 내기 힘들어지자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퇴직 후 친구의 권유로 노래방을 시작했던 박모(58)씨도 불과 6개월만에 영업을 포기했다. 박씨는 “하루에 겨우 2팀을 받은 적도 있을 정도로 손님이 없었다”며 “그나마 있는 돈마저 날리고 나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와 박씨처럼 창업 1년도 안 돼 문을 닫는 소상공인은 10명 중 1명꼴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소상공인 통계집’에 따르면 창업 5년 안에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장사라도 하자’라는 식으로 사전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섰던 자영업자들의 하루 매출이 3만~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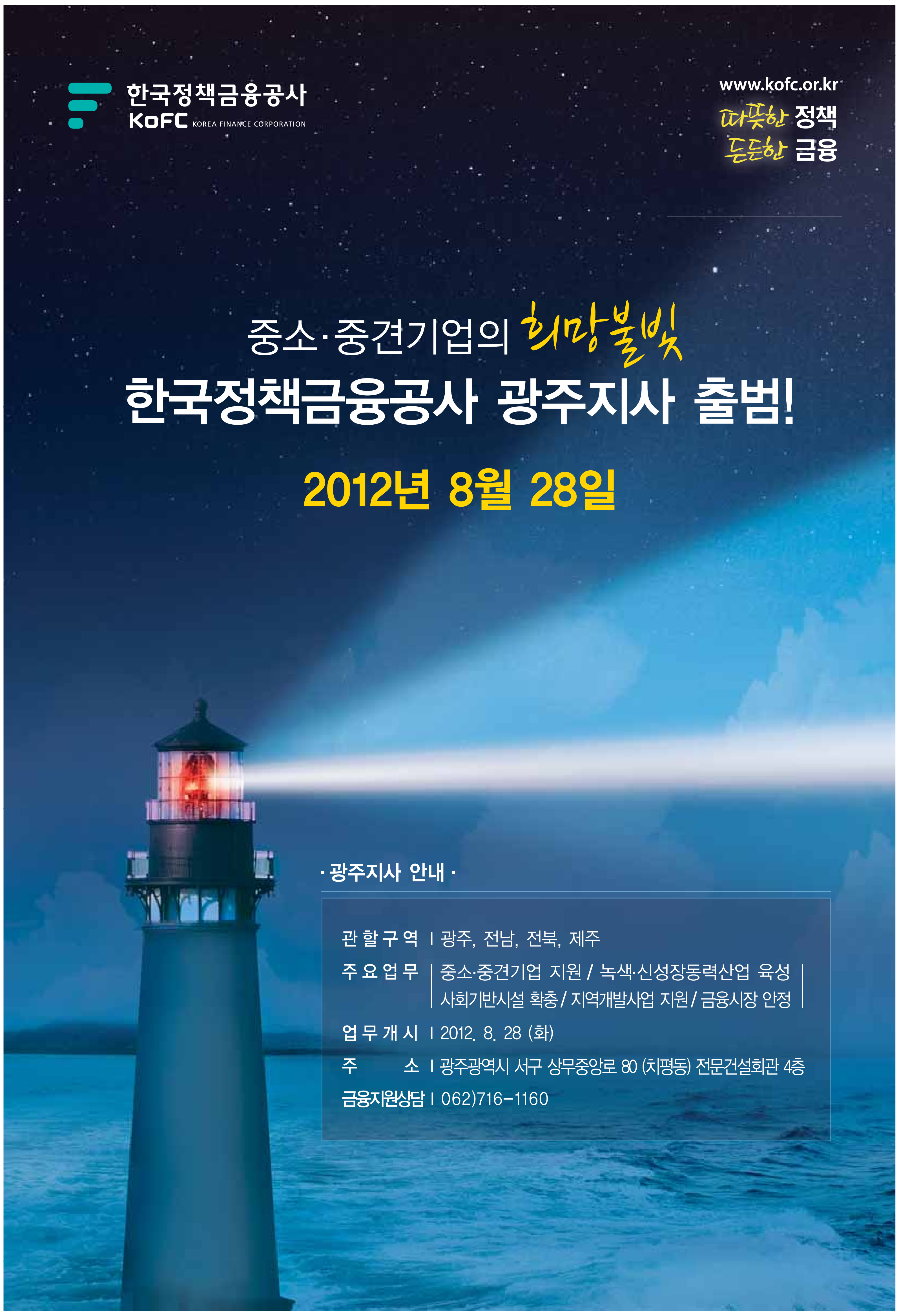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10개 도시의 1760개 숙박·목욕·이용·미용·피부미용·세탁업소를 면접조사한 결과 이용업 종사자의 88.7%와 세탁업 종사자의 62.3%가 연매출이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잇단 창업에 경쟁 치열=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만7043명이던 광주지역 소상공인은 지난 2010년 8만2227명으로 6.7%(5184명) 증가하는 등 자영업에 진출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자 수도 지난 2006년 14만6096명에서 지난 2010년 15만5768명으로 9675명(6.6%)이 늘었다.

광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5000만~1억원씩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도 지난 2010년 629명에서 지난해 675명으로 늘었으며, 40~50대의 창업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베이비붐세대들의 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밑천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처럼 창업이 비교적 쉬운 업종에 몰려들고 있다. 결국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소규모 영세업종은 자연스레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북구 삼각동에 닭강정 전문점을 오픈했던 최모(35)씨는 “지난해 말 닭강정이 인기를 끌면서 전망이 좋아보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5000만원을 끌어 모아 개업했다”며 “하지만 불과 두 달 사이, 가게 인근에만 닭강정 가게가 3곳이 더 생겨, 결국은 영업을 포기하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42)씨는 “한 업종이 인기를 끌면 너도나도 같은 가게를 개업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폐업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가게를 내놓더라도 몇 달 동안 문의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